

##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관한 연구

손 환<sup>1)</sup>

### A Study on Life and Sport Activities of Shon Kee-Chung

Son, Hwan<sup>1</sup>

#### Abstract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life and sport activities of Shon Kee-Chung. It was examined by focusing on his life, activities as the player, activities as the sport instructor, and sports thought. As a result, the following can be concluded.

Shon Kee-Chung became interested in running because of poverty when he was young. He became distinguished in running as winning in the local race from 1928 when he graduated from Yakjuk Elementary School. In 1931, while he achieved good record in the official race for the first time, he entered into Yangjeong Middle School for scientific and systematic sport activities. At that time, he started marathon as his friend Gwon Tae-Ha recommended. Then, he had established new records and became the best runner in a domestic marathon circle. Thanks to these activities, he participated in the 11th Berlin Olympic Games in 1936 and acquired the gold medal for the first time as Korean. However, he retired from marathon because of the case that a reporter Lee Gil-Yong deleted a national flag of Japan on his cloth. Since then, he became the instructor and made substantial efforts to exploit competent runners to cultivate successors all over the country. In particular, he organized marathon promotion association in 1946 and exploited and cultivated athletes as holding a variety of races. The results of his efforts were winning in Boston Marathon Race and Asian Games.

Moreover, Shon Kee-Chung emphasized the roles of instructors who had prominent experiences in relevant fields to cultivate competent athletes and that it would be required to establish a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to cultivate instructors, to expand sport facilities and to cultivate social athletes as the measure to promote sports in Korea. In addition, he pointed out that the future of a nation depended on health of young people and insisted the necessity of welfare sports, climbing and swimming for this purpose.

---

\*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중앙대학교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1. Chung-Ang University  
72-1 Neri Dedugmyun Ansongsi Kyunggido  
456-756 Korea

As described above, Shon Kee-Chung enlightened national awareness of people under the Japanese' rule at that time as the first Korean who got the gold medal in the Olympic Games. Furthermore, he had put every effort to cultivate successors as the instructor since his retirement because of the case that a reporter Lee Gil-Yong deleted a national flag of Japan on his cloth. Moreover, we can evaluate him as the person who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 on development of modern sports in Korea, especially field and track events in Korea through many activities including suggestion of a number of methods to promote sports in Korea.

Key words : shon kee-chung life, sport activities, sport thought

## I. 서론

비운의 스타, 조국 없는 마라토너, 일장기말소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마라톤계의 영웅 손기정이 2002년 11월 15일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다. 191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무작정 달리기를 좋아했던 그가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라는 세계무대에서 당시 인간의 한계라고 불리는 2시간 30분대의 벽(2시간 29분 19초)을 돌파하고 당당히 우승했다. 이 우승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받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울분을 토로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살사건으로 인하여 마라톤을 그만두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후 손기정은 한국마라톤 역사상 최초의(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황영조가 우승하기 이전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또한 일본마라톤 역사상 유일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로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손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마라톤계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래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베를린올림픽대회 마

라톤 우승과 일장기말살사건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올림픽성화회, 1996), 또한 손기정의 생애와 사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黃永祚, 1998). 그러나 이들 연구는 손기정의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내용과 손기정의 스포츠 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1차 자료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근대체육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여겨지는 손기정에 대한 검토는 한국근대체육사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근대체육사에 있어 인물사연구의 위치를 확립해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근대체육사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기정의 자서전,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여 손기정의 생애, 선수로서의 활동, 지도자로서의 활동, 스포츠 관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한국근대스포츠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손기정의 생애

손기정은 1912년 음력 8월 29일 신의주의 남민포동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아버지 손인석과 어머니 김복녀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지방이어서 아이들의 놀이란 대개 축구나 스케이트링 같은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날씬하고 멋진 날이 번쩍이는 그런 스케이트가 타고 싶었는데, 가난한 집 형편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가진 것 없이는 운동을 하려해도 별로 할 것이 없었다. 달리기, 오직 달리기만이 어떤 장애도 비용도 들지 않는 멋진 운동이었다. 달리기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났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달리기에 흥미를 느꼈고 누구보다도 잘 달릴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신의주의 약죽보통학교에 다녔는데, 2km 정도의 자갈밭길은 좋은 연습코스가 되었다(孫基禎, 1983: 36-39). 약죽보통학교 5학년 여름에 커다란 해일이 신의주를 덮쳐 손기정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로 인해 그는 참외장사, 각설탕장사를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녔다. 이때 손기정은 이일성선생(의주사범출신, 육상장거리선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손기정의 소질을 인정해 처음으로 달리는 법을 가르치고 육상선수로서의 길로 인도해주는 등 어린시절 손기정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孫基禎, 1983: 42-43). 이와 같이 그는 어린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행상을 하면서 학비를 벌며 학교를 다녔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축구나 스케이트보다 돈이 안 드는 달리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1928년 약죽보통학교를 졸업한 손기정은 육상선수로서의 소질을 인정받아 신의주상업학교로부터 입학제의를 받았으나 가정형편이 좋아지지 않아 결국 압록강인쇄소에 취직했다. 그러나 동년 9

월 이일성선생의 권유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신의주에 돌아온 그는 동익상회(곡물위탁회사)에 취직했는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요, 달리기란 사실을 잊지 않고 일이 끝나면 틈나는 대로 달리기 연습에 몰두했다(孫基禎, 1983: 45-49).

그러던 중 그는 1931년 여름 시민대운동회 마라톤에 출전하여 2등을 했는데, 그때 주위로부터 트랙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일 정도를 연습한 후 朝鮮神宮競技大會 지방예선에 출전해 5,000m에서 우승하여 대표로 뽑혀 제7회 朝鮮神宮競技大會에 출전해 조선신기록으로 우승을 했다. 이듬해 봄 京永마라톤에서 그는 2등을 해 고향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여러 선배의 지도를 받기 위해 養正高普에 입학했다(孫基禎, 1936: 31-33). 이와 같이 그는 틈나는 대로 달리기연습에 몰두한 끝에 1931년 그의 나이 19세 때 공식대회에 출전해 자신의 달리기 능력을 시험해 보고, 당시 육상의 명문 양정고보에 입학을 했는데, 실제로 양정고보에 입학한 이유는 어린시절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배움에 대한 의욕과 육상의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손기정은 양정고보의 육상선수로서 조선신궁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국내경기대회와 일본에서 열린 메이지신궁경기대회와 전 일본마라톤대회 등에 참가해 3번의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해 마라톤계의 1인자로서 군림하며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1935년에 열린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후보 선발전에서 그는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출전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활약으로 그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 처음으로 2시간 30분대의 벽을 돌파하며 한국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일본마라톤 역사상 유일하게 금메달을 차지했다.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소식은 일본과 조선의 전국방방곡곡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우승의 기쁨도 잠시 동아일보의 이길용기자에 의한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손기정은 결국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1937년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손기정은 도쿄고등사범학교 체육과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김성수의 덕택으로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입학환영회가 비밀집회로 간주되어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등 그에 대한 감시로 인해 말도 없이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정상희와 권태하의 주선으로 다시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메이지대학에 입학했다(고두현, 1997: 357-359). 1939년 12월 20일 메이지대학 졸업을 앞두고 손기정은 평양공회당에서 관서체육회장이기찬의 주례로 강복신(육상단거리선수, 동덕여자 교사)과 결혼식을 했다. 이 두 사람은 선수 시절 경성운동장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서로를 잘 알고 있던 고봉오(조선일보기자)의 부부소개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白玉斧, 1940: 228-231).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자 우리체육계는 제자리를 잡기 위해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년 9월 23일 손기정을 비롯한 육상인들은 조선육상경기연맹을 결성했다. 이듬해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우승 10주년을 맞이해 손기정 등은 조선마라톤보급회를 결성하고 자신의 집에 마라톤합숙소라는 현판을 걸고 마라톤보급운동에 노력하면서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손기정은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감독, 1948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 코치, 1963년 대한육상연맹 회장, 1966년 제5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마라톤의 보급,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 공로로 1957년에는 대한민국 체육상, 1970년에는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았으며, 또한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대회,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때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특별초청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때에는 성희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2002년 11월 9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東亞日報, 2002. 11. 16, 朝鮮日報, 2002. 11. 16).

### Ⅲ. 손기정의 스포츠활동

#### 1. 선수로서의 활동

손기정이 처음으로 출전한 공식대회는 1931년 10월에 개최된 제7회 조선신궁체육대회였다. 평안북도 대표로 출전한 그는 5,000m에서 16분18초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京城日報, 1931. 10. 17). 이때 그는 마라톤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김은배가 마라톤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고 그 명성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김은배와 같이 세계기록을 돌파하려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고는 꾸준히 연습을 계속했다(孫基禎 1936: 32).

1932년 3월 손기정은 마라톤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동아일보 주최의 京永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여기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는 한번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교운동부에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육상의 명문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33년 손기정은 선배 권태하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 편

지는 손기정이 정식마라토너로 전환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 내용을 보면(孫基禎, 1983: 89),

손기정군 나는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실패했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나는 손군과 함께 연습하면서 손군이 가진 뛰어난 마라톤 소질을 보았네. 손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지금부터라도 어딘가 정식 마라톤을 시작하게. 그래서 꼭 세계마라톤을 제패해 저 일본사람들의 콧대를 눌러 주게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기정은 “권태하선배의 미국으로부터의 편지는 내가 베를린올림픽을 인생 최대의 결전장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 편지가 없었다면 양정재학 중 나는 마라톤을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鎌田忠良, 1988: 163-164)고 했다. 이와 같이 권태하는 손기정의 마라톤소질을 파악하고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제패해 일본인들의 기를 눌러 자신이 못 다한 꿈을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정식마라톤을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손기정은 차츰 마라토너로서의 준비

를 하면서 그의 인생최대의 목표도 선배들이 도전하다 실패한 올림픽대회의 마라톤우승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손기정은 국내외의 각종경기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그는 1933년 권태하로부터 편지를 받기 전에는 주로 중·장거리에 출전했으나, 1933년 이후에는 중·장거리뿐만 아니라 계주, 마라톤에도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3년 10월의 제9회 조선신궁경기대회와 1935년의 제1회 전 조선마라톤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비공인)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그는 1935년 11월 3일 베를린올림픽대회 후보선발전을 겸해 열린 제8회 메이지신궁체육대회에 출전해 2시간 26분42초라는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올림픽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손기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新東亞社編輯部, 1936: 56).

全日本總精銳四十餘名이 출발하여 서로 페스트를 다하여 뛰었는데 應援自動車가 八台나 따르고 沿路에 朝鮮同胞가 激烈히 응원하여주어서 더욱

표 1. 선수시절 손기정의 기록 상황

대회	연도	종목	성적(기록)
평안북도체육회	1931.9.20	5000m	우승
제7회 조선신궁체육대회	1931.10.17	5000m	우승(16분18초5)
제3회 경인역전	1932.4.3		우승(4시간55분)
제10회 LA올림픽 조선예선	1932.5.8	10000m	준우승
		5000m	우승(16분3초2)
제6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대회	1932.6.12	1500m	3위
		5000m	3위
鮮滿대항육상대회	1932.9.4	5000m	우승(16분22초)
제10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대회	1932.9.23	1500m	우승(4분28초5)
		8마일	준우승
관서체육대회	1932.10.6	5000m	준우승
제8회 조선신궁체육대회	1932.10.16-18	10000m	준우승
		5000m	준우승

8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관한 연구

제7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대회	1933.6.11	800m 1500m 5000m	3위 우승(4분23초) 우승(17분7초4)
조선체육대회	1933.6.24	800m	우승(17분7초4)
전조선과 와세다대 육상대항전	1933.7.2	5000m	우승
제11회 전조선중등육상대회	1933.10	1500m 8마일	우승(4분37초3) 우승(44분22초)
제9회조선신궁경기대회	1933.10	마라톤	우승(2시간29분34초4) 세계신기록
제3회 경성육상선수권대회	1934.4.3	5000m	우승(16분26초2)
제2회 풀 마라톤대회	1934.4.22	마라톤	우승(2시간24분51초2)
제3회 중등학교육상대회	1934.6.10	400m 800m	우승(55초) 우승(2분9초4)
제1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대항전	1934	800m 1500m 5000m	우승(2분11초4) 우승(4분20초) 우승(18분1초)
鮮滿대항육상경기대회	1934.10.14-15	1500m 5000m	준우승 준우승
제10회조선신궁체육대회	1934.10.17	1500m	우승(4분22초)
제15회 전조선종합대회	1934.11.14	마라톤 1500m	우승(2시간32분19초8) 우승
전조선육상경기대회	1935.2.10	5000m 1500m 800m	준우승(16분24초4) 준우승 5위(2분6초4)
제1회 마라톤대회	1935.2.22	8마일	우승(43분25초)
제6회 경인역전	1935.3.3		우승
제1회 전일본마라톤대회	1935.3.21	마라톤	우승(2시간26분14초)
제11회 베를린올림픽후보선발전	1935.4.3	마라톤	등외(2시간39분34초)
제1회 전조선마라톤대회	1935.4.28	마라톤	우승(2시간25분14초) 세계신기록
제3회 풀 마라톤대회	1935.5.18	마라톤	우승(2시간24분28초)
제2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대회	1935.7.27-28	800m 1500m 5000m	준우승(2분10초9) 준우승(4분28초7) 우승(17분5초)
제21회 전일본중등학교육상대회	1935.8.24-25	800m 1500m 5000m	준우승(2분16초6) 준우승(4분15초8) 준우승(16분29초)
제2회 도내중등학교육상대회	1935.9.22	1600m제주 5000m	우승(3분40초) 우승(16분51초3)
제13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대회	1935.9.24	1600m제주 5000m	우승(3분43초4) 우승(16분30초)
일본육상선수권 조선예선	1935.9.29	1600m제주	우승(3분36초)
제11회조선신궁체육대회	1935.10.20	마라톤	우승(2시간42분2초)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1935.10.22	마라톤 10000m	준우승(2시간33분39초) 우승(32분54초)
제8회 메이지신궁체육대회	1935.11.3	1600m제주 마라톤	우승(3분42초) 우승(2시간26분42초) 세계신기록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1936.8.9	마라톤	우승(2시간29분19초) 세계신기록

참고: 京城日報. 1931년10월17일자, 李丙權編(1983). 養正體育史. 養友體育會. pp.149-190.  
鎌田忠良(1988). 日章旗とマラソン. 講談社. pp.161-189.를 참고로 작성.

元氣百倍이었습니다. 마라손은 가장 人氣焦點의 種目이므로 近十餘萬名의 觀衆이 물밀 듯 물리고 야단들이었습니다. 結局 競技場에 도착했을때에는 그저 無我夢中으로 끝내 도착하였습니다. 뒤에 들으니 百米나 二百米를 다리는 듯한 速力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조금있다가 들으니 世界最高記錄突破라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는데 저가 꿈꾸는 目的을 達한지라 그 瞬間에 말할수없이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조선동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어린시절 김은배와 같이 세계신기록을 돌파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936년 8월 9일 28개국에서 51명이 출전한 가운데 마라톤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때 손기정은 “몸과 마음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쾌적한 기분이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이다. 4년 후엔 또 나올 수나 있을까?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동안 나는 내 기록을 내고도 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김은배선배가 6위, 권태하선배가 9위를 했으니 5위면 만족이다”라고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다. 결승테이프를 끊은 시간은 2시간29분19초, 국제공식대회에서 처음 30분대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李丙權, 1983: 211-213). 이 때 손기정의 심정은 당시 朝鮮日報 東京支局長인 金東進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朝鮮日報社編輯部, 1936: 231),

깃브기도 깃브나 실상은 웬일인지 이기고나니 깃브보다도 알지못할 설움만이 가슴에 북바쳐올으며 울음만이 나옵니다. 남형도 역시 나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사람없는 곳에 가서 남몰래 서로 붓들고 몇 번인가 울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손기정은 긴장을 풀기 위해 지금까지 선배들의 성적을 상기하면서 마음의 각

오를 다지고 경기에 임해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 후 그는 그동안의 가난과 절망, 우정과 배려, 민족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교차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손기정의 우승소식을 호의발행으로 알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東亞日報, 1936. 8. 9, 朝鮮日報, 1936. 8. 11),

感激 또 感激! 오직 興奮의 바다에 젊은 朝鮮의 名譽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세라, 孤軍奮鬪 難코스라고 일컫던 難코스 難航에 激戰을 하면서 당당한 세계에 각기 각기 祖國을 위하여 명예를 걸고 나선 30여국 마라톤 56명의 선수를 닦치는 대로 잡아 제치고 우리의 젊은 두 마라토너는 천하의 凱歌를 權域인이 땅으로 가져왔다. 그뿐이랴! 千秩萬代에 이 인류로서의 “최대 명예요 최고의 힘인 마라톤 勝者라” 이것을 기념코자 伯林의 聖戰場 마라톤장에 우승자의 銅像을 세우게 되었으니 우리 孫군의 빛나는 凱歌!

우리는 이번 孫, 南 兩君의 勝利로서 民族的의 一大榮譽을 얻는 동시에 民族的의 一大自信을 얻게 되었다. 世界올림픽大會 마라톤競技에 영예의 월계관을 받은 孫君 및 南君의 壯舉를 祝하고 이것을 기회로 스포츠 기타 온갖 방면에 一大 世界的 水平 運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신문은 손기정이 인류의 최대 영예인 마라톤에서 각국의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 민족의 영예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손기정의 마라톤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축전이 쇄도하고 축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森田邦夫, 1936: 2-3),

光州의 崔南周氏는 千圓을 보낸다고 했으며 育英會와 玄俊鎬氏는 學資保障을 發表했다. 養正高普의 同窓會에서는 世界制霸記功塔 建設計劃을 세우고, 또한 各地에서 孫君優勝을 記念하는 體育館, 銅像의 建設이 논의되었다. 鐘路의 某 구두점에서

는 평생 동안 구두를 無料로 제공할 것을 發表해 人氣를 얻고 있다. 八月末에는 東洋劇場에서 青春座文藝部編 3幕5場的 “마라손왕 孫基禎君 萬歲”劇 이 公開되었다

라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손기정의 마라톤우승 후 각지에서는 학자금보장, 기념탑 및 체육관건립, 동상 건립, 구두제공, 연극공개 등이 행해졌는데, 이는 당시 국민들의 성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손기정은 우승 후 현지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요청받았는데 이때 국명을 Japan이 아니라 Korea로, 이름도 孫基禎이 아니라 한글로 손기정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년의 올림픽후보선발전에서 수립한 세계신기록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대에 섰을 때 기미가요가 연주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인솔교사였던 김연창에게 “왜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없습니까. 왜 기미가요가 조선의 국가입니까”라고 분개한 적이 있는데, 이 무렵부터 그의 민족의식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鎌田忠良, 1988: 47-50). 이와 같이 손기정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우리의 국가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며 스스로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들의 사인요청에 Korea와 손기정으로 사인을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베를린올림픽기념 공식엽서에 사인한 그림1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조선일보. 2003. 11. 25), 그림1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뒤 친필로 쓴 것으로 알려진 서명이 있는 독일엽서로서 뒤면에는 marathon, K. Son, 손기정. KOREAN, 1936.8.15. 가 적혀있고 앞면에는 1936년 8월 16일자 소인이 찍혀있다.

그러나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 석간에 손기정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가 지워진 채 지면에 게재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아일보 일장기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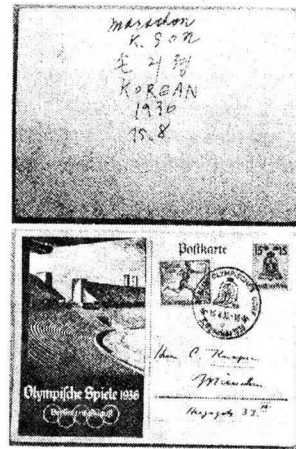


그림 1. 손기정의 사인엽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찰부는 동아일보 사회부장, 운동부장 등을 취조한 결과 고의로 약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신문지법 제21조에 의해 8월 27일 석간부터 무기한 발행정지의 처분을 내렸다(森田芳夫, 1936: 9-10). 당시 이 사건의 장본인인 이길용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李丙權, 1983: 206).

우리 孫선수가 日人을 제압하고 더구나 세계를 制覇했으니 그 榮光과 痛快感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民族, 우리大韓의 아들이 優勝을 하였다고 과시할 수 있을까 하고 착잡한 心情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이때 日本 週刊誌 “朝日스포츠”에 게재된 孫선수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그 사진을 보니 문득, 이 사진에서 孫선수의 가슴에 붙은 日章旗를 지워서 다시 한번 신문에 게재하고 싶은 생각이 솟았다. 나는 사환을 불러 이 사진에서 日章旗를 지워 달래 가지고 오라고 했다. 사환은 李相範선생께 부탁하여 지워가지고 왔다. 나는 이 사진에 “榮譽의 우리孫군”이라는 說明을 붙여 編輯部에 넘겨 신문에 게재토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配布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길용은 손기정의 세계제패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장기말살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손기정은 마라톤을 그만두게 되었다.

## 2. 지도자로서의 활동

주지의 사실과 같이 손기정은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그러나 그는 동아일보의 이길용기자에 의한 일장기말살사건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마라톤육성을 위해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정상희씨와 권태하선배가 마라톤이나 운동세계를 멀리 떠난듯하면서도 열성스럽게 조선의 육상을 생각하고 있어 늦기 전에 후계자, 조선마라톤의 후배를 길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지원을 받아 마라톤보급운동을 펴기로 했다(孫基禎, 1983: 173-174). 이와 같이 손기정은 선배들의 스포츠에 대한 애착에 자극을 받아 마라톤의 지도자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의 지도자로서의 첫 시작은 메이지대학 졸업을 앞두고 일본 경보선수인 아사오(麻生武治)와 함께 “뛰라! 걸어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운동보급을 위해 조선반도를 돌아다녔다. 이때 만주에서 마라톤유망주로 임태섭을 발굴해 양정육상부에 입학시켰는데, 그는 안하무인이어서 결국 도중에 그만두고 만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대학졸업 전에 이루어보려던 후계자 양성의 꿈은 첫 출발부터 무참히 깨어져 버렸다(孫基禎, 1985: 219-220).

1940년 3월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그는 동년 4월 조선육상경기연맹의 소개로 저축은행에 입사했는데, 재직 중에도 그는 기회만 주어지면 마라톤보급에 온 정성을 기울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1941년 6월에는 황해도 체육회의 초청, 진

남포상공학교의 코치로 육상을 지도하고, 곳곳에서 그의 내방과 지도를 기다리며 반겨주었다(孫基禎, 1985: 226-227).

그러던 중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자 손기정을 비롯한 육상인들은 1945년 9월 23일 권태하선배의 사무실(종로의 영보빌딩)에서 조선육상경기연맹(회장 김승식)을 설립했다. 이듬해 1946년 8월 9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10주년을 맞은날 동아일보는 “회상의 저녁”이라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 모임이 끝난 뒤 권태하의 집에서 김은배, 남승룡, 이길용, 손기정 등이 모여 2년 뒤의 런던올림픽에 대비해서 마라톤보급회를 조직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태하가 위원장, 김은배가 총무, 남승룡과 손기정이 지도원을 맡은 조선마라톤보급회가 탄생하고 안암동의 손기정집에 마라톤합숙소의 간판까지 달고 4개의 방을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신인유망주들에게 내주고 훈련시켰다(고두현, 1997: 369-371). 조선마라톤보급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뛰어난 인재는 서윤복이었다. 그는 원래 중거리선수였는데, 마라톤 연습을 통해 국내선수권을 차지하면서 국내최고의 마라토너로 발돋움했다. 지도자로서 손기정이 거둔 첫 번째 성과는 1947년 제51회 보스톤마라톤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감독으로 선수를 인솔한 손기정은 서윤복의 우승으로 지도자로서의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孫基禎, 1985: 248-253). 또한 1950년 4월 19일에는 두 번째로 보스톤마라톤대회에 참가했는데, 손기정은 코치로서 최윤칠, 함기용, 송길윤 등 3명의 선수를 인솔했다. 이 대회에서는 공교롭게도 우리 선수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孫基禎, 1985: 258-260). 당시 보스톤마라톤대회 우승자였던 서윤복과 함기용은 당시의 연습상황에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중앙일보. 2002. 11. 16, 東亞日報. 2002. 11. 16).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 후배들을 돈암동 자택으로 불러 먹이고 재우며 훈련을 시킨... 후배들의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니며 모금운동을... 조국을 위해 뛰어라! 저희들과 함께 돈암동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불호령을 내리시던...

선생님은 돈암동 자택에서 어린선수들을 재우고 먹이며 손수 합숙훈련을 시켰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다보니 늘 쪼들려 여기저기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시곤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늘 선수들에게 통닭과 함께 새우젓을 먹였다. 그래야 마라톤을 잘한다는 주장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땀을 많이 흘리는 선수들이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 것이더라...

이와 같이 손기정은 자택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직접훈련을 통해 후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특히 훈련비 마련을 위해서는 직접 뛰어나왔다.

1953년 전쟁이 끝나자 손기정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망한 인재발굴에 나섰다. 대구에서 마라톤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창훈을 만나 양정중학교에 입학시켰는데, 그는 기대했던 대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더니 2학년 때 1956년 멜버른올림픽의 대표로 뽑혔다. 그리고 1958년 5월의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고두현, 2003: 89-92). 이처럼 손기정은 서윤복, 함기용, 이창훈 등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을 양성했다는 공로로 1957년 대한민국 체육상(지도자상)을 받았다.

1976년 8월에는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제패 40주년 축하파티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손기정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孫基禎, 1983: 275).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라 없을 때도 이기던 우리 마라톤이 제 나라를 가진 지금은 왜 못 이깁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후배들

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제 자신이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생이나마 마라톤 재건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한국마라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마라톤 재건을 위해 여생을 바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1979년 손기정을 비롯해 김은배, 서윤복, 최윤철, 함기용 등은 한국마라톤의 장래를 생각해 마라톤후원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손기정은 마라톤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대한육상연맹 안에 마라톤강화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5,000m, 10,000m, 마라톤 등 장거리선수의 지도를 맡고 있으며, 또한 별개의 단체로 재정을 담당할 한국마라톤후원회도 조직되었다(孫基禎, 1983: 289-290). 이와 같이 손기정은 지도자로서 선수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발굴에 힘썼는데,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한국마라톤의 위상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 IV. 손기정의 스포츠 관

손기정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린시절부터였다. 그러나 손기정은 다른 아이들처럼 스키이트나 야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달리기를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孫基禎, 1936: 181).

내가 이 마라손을 시작하기는 보통학교 5학년 되던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키트를 지친다 어떤 아이들은 야구를 한다 하지만도 가난한 나에게는 그런 돈드는 운동은 아예 당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맨발로 샛쓰한개로 달릴 수 있는 이 마라손에 처음 발을 디려놓은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손기정은 처음에 스케이트와 야구에 관심을 가졌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달리기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달리기만이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달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후 손기정은 국내의 각종대회는 물론이고 일본에서 개최된 각종대회에도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그는 지난(1935) 3월 21일의 신궁경기(제1회 전 일본마라톤대회를 착각)에서 우승했을 때, 어떤 일본인에게 “당신은 아무런 지도자도 안가지고 연습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제 종목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소. 제 종목은 제가 혼자 연습해야 하지 나는 그런 지도를 받을 줄 몰라요”라고 억지대답을 했다(孫基禎b, 1936: 184).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는 일본신수의 경우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코치를 받아가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시 지도자 없는 조선스포츠계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저축은행에 입사해 지도자로 변신했는데, 이때 그는 후계자양성을 위해 기자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金東煥, 1940: 63-64),

내가 즐기는 競技도 그냥 繼續練習할 수도 있고 그 方面으로 活動할 여유를 社會에서 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社會가 주는 여유는 커녕 運動方面에서 活動하는 人士들까지도 모른척하는데는 氣가 막혔습니다. 卑近한 例를 들면 養正中學校 敎母校 요 따라서 陸上競技를 가장 힘쓰는 學校인데 한번 두 우리들과 連絡을 取하는 法도 없고 우리를 불러다가 後輩들에게 體驗談이나 또는 코-취도 시키지 않아요... 비단 내 母校 뿐만아니라 무슨 體育協會이니 하는 體育團體도 亦是 이 態度지요... 그리고 中學校나 專門學校에서 連絡을 取해주면 가장 謙虛한 立場에서 最善을 다해 우리의 體驗으로써 後繼者養成에 努力하렵니다

이와 같이 손기정은 올림픽 우승 후 자신에 대한 사회의 소홀과 냉대를 지적하고 후계자양성을

위해서는 그 방면에 뛰어난 경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가 오면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후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그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유럽에는 각 지역마다 운동장을 설치해 체육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운동장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金東煥, 1940: 63).

이러한 그의 후계자양성에 대한 포부와 운동장 시설의 확충은 “體育大祭典參觀과 朝鮮體育振興에의 展望”에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孫基禎, 1941: 190-194),

體育向上에 있어서 첫째로 一般體育의 普及과 指導者의 養成이 時急한 問題의 하나이다. 特히 指導者養成에 있어선 體育大學의 創設은 무엇보다도 喫緊히 要求한다. 둘째로 一般種目을 區別하여 選手를 排出함에 있어서는 對抗戰이라는 것이 매우 必要하다고 본다. 어쨌든 一定한 定期競技가 좋을 것이라 보며 運動場같은 것도 自由로 使用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셋째로 一般體育向上 普及을 爲해서 各會社, 工場等에 運動指導者를 두어서 一定한 時間에 國民體操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歐米의 選手는 學生中에서는 無論, 會社員이나 工場中에서 많이 培出되지만 內地나 朝鮮에서는 學校學生中에서만 選手가 培出될뿐이오 會社員이나 其他 職業을 가진 社會人中에서 選手가 培出되어지는 일은 尠혀없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조선체육의 진흥을 위한 방책, 특히 육상조선의 향상을 위해 체육대학의 설치를 통한 체육의 보급과 지도자의 양성, 운동장개방을 통한 대항전의 개최, 국민체조의 실시를 위해 각 기관에 지도자의 배치, 사회인선수의 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시체제가 되자 운동의 중심이 군사적인 것으로 변화되었으나 운동의 근본목표는 민중보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보건광장을 만들어 간단한 운동

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외에서 야외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은 물론이고 왕성한 용기와 견고한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전시 하 조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孫基禎 1943: 161). 그리고 그는 야외활동의 방법으로서 대자연을 대상으로 체력증진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등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孫基禎 1943: 59), 더구나 우리들은 반도인이면서 수영이 위협하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시설의 확충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孫基禎 1943: 97). 이와 같이 그는 전시 하에 있어 대부분의 스포츠활동이 제한되고 군사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장래 국가의 운명은 청소년의 건강에 있음을 알고 후생운동과 등산, 수영 등 야외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생애, 선수로서의 활동, 지도자로서의 활동, 스포츠 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손기정은 어린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달리기 에 관심을 가졌는데, 1928년 약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지역대항시합에 나가 우승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31년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싶어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선배인 권태하의 권유로 마라톤에 입문해 각종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국내 마라톤계의 1인자가 되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

어 그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에 출전해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길용기자의 일장기말살사건으로 마라톤에서 은퇴하고 지도자로 변신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재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46년에는 마라톤보급회를 조직하고 각종대회의 개최를 통해서 선수들을 발굴, 육성했는데 그 결실이 보스톤마라톤대회와 아시아경기 대회에서의 우승이었다.

그리고 손기정은 후계자양성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뛰어난 경험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조선체육의 진흥을 위한 방책으로 체육대학의 설치, 지도자의 양성, 운동시설의 확충, 사회인선수의 육성에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의 건강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후생운동과 등산, 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손기정은 올림픽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당시 식민지통치 하에 있던 우리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일장기말살사건으로 은퇴한 후에는 지도자로서 후계자양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으며, 조선체육의 진흥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근대스포츠, 특히 한국육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京城日報. 1931년 10월 17일.
2. 東亞日報. 1936년 8월 9일, 2002년 11월 16일.
3. 朝鮮日報. 1936년 8월 11일, 2002년 11월 16일, 2003년 11월 25일
4. 중앙일보. 2002년 11월 16일.
5. 고두현(1997). 베를린의 월계관. 서울올림픽기

- 님 국민체육진흥공단.
6. 고두현. 손기정에 관한 재발견(22). all Sports 21c. 2003.1. 웹 스포츠코리아.
  7. 金東煥. 民族의 祭典. 三千里 12(8). 1940.9. 三千里社.
  8. 白玉斧. 마라손王 孫基禎君의 結婚行進曲. 朝光 6(2). 1940.2. 朝鮮日報社出版部.
  9. 孫基禎a. 伯林올림픽大會를 바라보며. 三千里 8(1). 1936.1. 三千里社.
  10. 孫基禎b. 世界記錄突破後. 新東亞 6(1). 1936.1. 新東亞社.
  11. 孫基禎. 民族의 祭典을 보고. 三千里 12(6). 1940.6. 三千里社.
  12. 孫基禎. 體育大祭典參觀과 朝鮮體育振興에의 展望. 三千里 13(1). 1941.3. 三千里社.
  13. 孫基禎a. 厚生運動. 朝光 9(4). 1943.4. 朝光社.
  14. 孫基禎b. 登山ABC. 朝光 9(5). 1943.5. 朝光社.
  15. 孫基禎c. 國民皆泳. 朝光 9(6). 1943.7. 朝光社.
  16. 孫基禎(1983). 나의 祖國 나의 마라톤-孫基禎 自敘傳-. 한국일보社出版局.
  17. 孫基禎(1985). ああ月桂冠に涙. 講談社.
  18. 新東亞社編輯部. 一流選手座談會. 新東亞 6(1). 1936.1. 新東亞社.
  19. 올림픽성화회(1996). '36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 60주년 기념행사.
  20. 李丙權(1983). 養正體育史. 養友體育會.
  21. 朝鮮日報社編輯部. 마라손王 孫南兩君의 戰捷記. 朝光 2(9). 1936.9. 朝光社.
  22. 黃永祚(1998). 마라톤너 孫基禎의 生涯와 思想.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23. 森田芳夫(1936). 孫選手のマラソン優勝と日章旗マーク抹消事件. 綠旗パンフレット 第五輯. 綠旗聯盟.
  24. 鎌田忠良(1988). 日章旗とマラソン. 講談社.

논문투고일 : 2004. 5. 7

심사완료일 : 2004. 7. 5